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35호

**7/23(일)~8/5(토)신일본스포츠연맹 평화행진**

**신일본스포츠연맹 평화행진에 체육시민연대 청년 참여**

글: 이중남 체육시민연대 청년

**체육계의 검은카르텔**

**'강요된 기부' 체조선수들의 눈물**

SBS NEWS

**경기도청,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선수·지도자 권리 보호...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김경태 연합뉴스기자

**8일 웨일스·13일 사우디아라비아 상대...클린스만 감독 첫 승 도전**

**손흥민·황희찬 등 유럽파 펄펄...국내파 선수들은 4일 영국으로**

김동찬 연합뉴스기자

**2023년 국제빙상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출전 한국 선수 전원 입상**

구현주 마이데일리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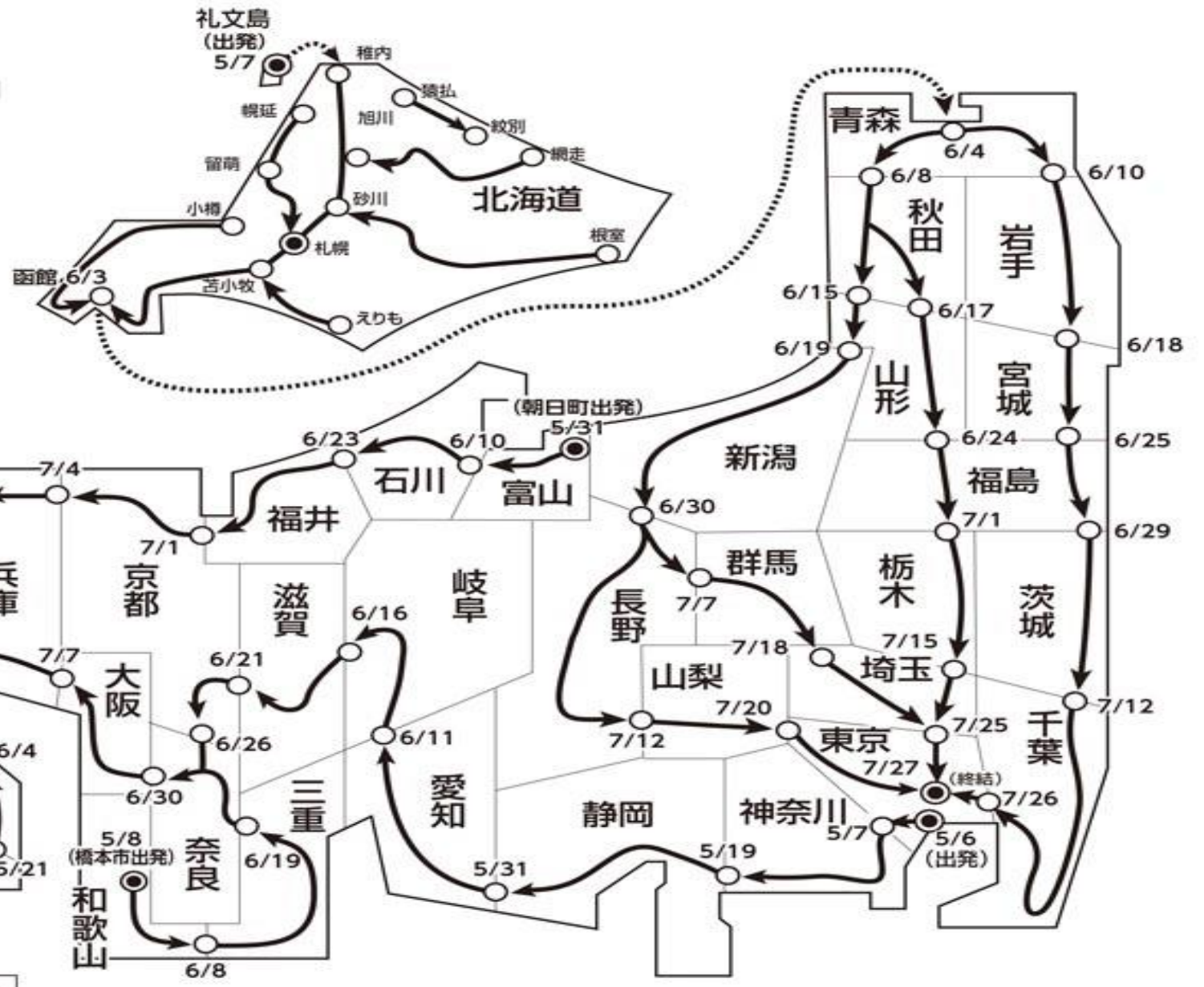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2023年 国民平和大行進

日程・コース (2023.3.17確定)

- = 出発・終結点
- = 県境引継点



※県内の詳しい日程、行動については各都道府県実行委員会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일본 평화행진을 다녀오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이중남이라고 합니다.

처음 체육시민연대와 신일본스포츠연맹을 알게 된 것은 체육학과 단톡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일본에서 평화 마라톤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일본과 평화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던 기억 떠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평화 행진을 했을 때는 거리를 걸으며 전쟁, 폭력, 핵폭탄 등등에 관한 것들을 멈추고 평화를 지키자 이런 내용들의 팜플렛,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 거리를 걷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웠고 도쿄에서 있던 어떤 날은 날씨가 39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화행진을 했던 지역은 크게 도쿄, 히로시마로 나누고 싶습니다. 도쿄 외곽부터 도쿄 중심부 히로시마 외곽부터 중심부까지 행진하며 나이가 정말 많으신 어르신들이 항상 제 옆을 지켜주시고 저를 챙겨 주시고 행진에 같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 1일 차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행진이 끝나고 저녁에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또 언제 일본 사람들과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에는 이런 기회는 저에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행진에 한국을 대표해서 왔으면 한국을 조금 더 알리고 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일 차부터 저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같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기도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줬습니다. 저는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인상 깊게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아서 그런지 조금만 정차되어 있어도 빵빵 소리를 울리지만 제가 걸으면서 본 일본의 자동차 문화는 조용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7월 23일부터 8월4일까지 일본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며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쟁에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더욱 많은 사람이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일본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체육시민연대와

일본에서 저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여 주신 신일본스포츠 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뉴스토리] '강요된 기부' 체조선수들의 눈물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실업팀에 입단하면 대부분 '계약금'이란 걸 받는다. 그동안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을 인정받는 첫 경제적 대가로 상징적이다. 그런데 이 돈의 10%를 반강제적으로 학교에 내야 한다면 어떨까?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체육 특성화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 체조부 선수들의 이야기다.

SBS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한국체대 체조부에서 선수들의 계약금 10%를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학교발전기금 공식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 또는 재학생 명의의 개인 계좌로 최소 10년 넘게 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한체대 체조부 A 교수는 '졸업생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자발적인 기금 문화'임을 강조하며, 학생들 훈련경비와 운동복 구매, 명절 선물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계좌 내역을 입수해 살펴보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대다수였고, 심지어는 수백만 원의 금액이 A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체조계 인사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도 밝혀졌다. 선수들은 학교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계약금 10%를 납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조리함을 선불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특히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이나 실업팀 입단에 큰 영향력이 있는 A 교수의 권력을 두려워했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오히려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지적했다. 실제로 SBS가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자 체조부 측은 계약금을 낸 선수들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거라는 동의서를 받으며, 문제를 제기한 선수를 찾아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체육계의 환경 속에서 선수들은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강요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체육계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팀 내 가혹행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때에도 체육계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체육계의 수직적인 카르텔을 해결하진 못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금의 10%를 낼 수밖에 없었던 한국체대 체조부 출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체육계의 검은 카르텔에 대해 짚어본다.

# 선수 지도자 권리 보호...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경기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문제가 된 폭행 등 선수단 인권침해 행위나 지도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경기도는 30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돼왔다.

이에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변호사, 노무사,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과 달리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고,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 부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포함해 표준계약서를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군 설명회도 열어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손흥민 황희찬 등 유럽파 필필... 국내파 선수들은 4일 영국으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영국에서 9월 A매치를 준비한다. 한국은 우리시간으로 8일 오전 3시 45분 웨일스, 13일 오전 1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선 경기를 벌인다. 웨일스전은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사우디아라비아전은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파크에서 펼쳐진다.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영국으로 바로 합류하고, 국내에서 활약하는 K리거들은 3, 4일에 나눠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3일 차두리 코치, 이재홍 피지컬 코치와 이기제(수원), 김주성(서울), 김준홍(김천)이 먼저 출국했고, 4일에는 남은 K리거 8명이 영국으로 떠났다. 올해 2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네 차례 A매치에서 2무 2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해 이번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 외국인 사령탑 가운데 부임 후 네 경기까지 승리가 없는 첫 사례가 된 클린스만 감독은 최근 국내보다 외국에 주로 머물며 방송 출연 등 '부업'에 열심인 모양새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게다가 8월에는 이강인(PSG), 황희찬(울버햄프턴), 조규성(미트윌란) 등 해외파 선수들의 부상 소식도 연달아 날아들어 불안감이 더했다. 다행히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상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3일 번리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허벅지 부상으로 주춤했던 황희찬 역시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헤딩 골을 터뜨렸다. 여기에 벨기에 리그 홍현석(헨트)은 3일 클뤼프 브뤼헤전에서 2골을 몰아쳤으며 조규성도 4일 오르후스전에서 덴마크 진출 이후 첫 도움을 기록했다. 8월 초 종아리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결장했던 오현규(셀틱)는 3일 레인저스와 '올드뎀 더비'에 출전해 1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괴물 수비수'로 불리는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역시 3일 열린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와 경기에서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건재를 알렸다.

8월 말 허벅지 부상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은 이강인을 제외한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상승 곡선을 그리는 점은 웨일스전을 앞둔 클린스만 감독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또 유럽파 선수들이 비교적 짧은 이동 거리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도 컨디션 관리에 용이한 부분이다.

K리그에서는 최근 '승격팀' 광주FC의 돌풍을 주도하는 이순민의 상승세가 매섭고 선두를 달리는 울산 현대 소속 조현우, 김영권, 정승현, 설영우, 이동경 등이 유럽 원정에 나선다. 전북 현대 문선민과 안현범은 3일 제주 유나이티드 야간 원정 경기를 치르고, 4일 오전 비행기에 오르는 바쁜 일정이다.

영국 원정 첫 상대 웨일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5위로 28위인 한국보다 낮지만 에런 램지(카디프), 벤 데이비스(토트넘)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다. 2차전 상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2020년 유럽선수권에서 이탈리아를 정상에 올려놓은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이탈리아) 전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10월 A매치 기간에는 튀니지와 경기가 확정됐고, 남은 한 경기 상대로는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출전 한국 선수 전원 입상

2023년 국제빙상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전원이 시상대에 올랐다.

3일(한국시간) 김현겸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9.78점에 구성점수(PCS) 68.53점을 합쳐 138.31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에서 73.45점을 기록한 김현겸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211.76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김현겸은 프리프로그램 쿼드 토루프, 트리플 루프, 트리플 러츠 등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아 점수가 깎였으나, 4회전 점프 1개와 트리플 악셀 2개 배치라는 점프 구성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 경기력으로 2위를 사수했다.

2일(한국시간) 여자 싱글에서도 신지아와 권민솔이 나란히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신지아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9.42점에 예술점수(PCS) 61.53점을 합쳐 130.95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70.38점을 따낸 신지아는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201.33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200점을 돌파했으며, 2위를 차지한 일본 무라카미 하루나(168.37점)와 점수차는 무려 32.96점이다.

권민솔(목동중)은 전날 쇼트프로그램(50.10점)에서 8위를 차지했지만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15.83점을 따내 총점 165.93점으로 3위로 뛰어오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가라테연맹, '제6회 대한가라테연맹회장기 생활체육전국가라테대회' 성황리 개최

<http://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85>

일 커졌다! 스페인협회장 '키스게이트' 파문, UN도 나섰다...“합의 입맞춤 징후 없다, 성차별 중요 문제”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43619?ref=naver>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2036 서울 올림픽 유치[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04/121006003/1>

U-18 야구대표팀, 세계청소년선수권 체코전 14-1...대회 첫 승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4028300007?input=1195m>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 6조 9,796억원 편성...콘텐츠·관광·예술·체육 집중 지원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302>

'감사 중인데 갑자기?' 광주 북구 검도선수 석연치 않은 사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31\\_0002433026&cID=10809&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31_0002433026&cID=10809&pID=10800)

온몸 멍든 사진 폭로한 ...'성폭행' 의혹 이 선수, 맨유 떠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412>

KT, 2023 정조대왕 유니폼 공개...9월 한달간 선수단 착용

<http://www.osen.co.kr/article/G1112175787>

"집합해" 직접 몽둥이 든 야구감독... "못 맞겠다" 선수들 집단이탈[뉴스속오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114255112228>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